

2017 년 12 월 10 일 “(강림절) 화목을 구하는 갈망”(롬 12:14-18)

<도입>

성도님은 묵상하는 말씀과 깊이 부딪힐 때 나의 마음에 숨겨졌던 소원이 일깨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빌 2:13** “...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진실한 갈망(간절한 소원)을 심어 주십니다.

[1] 갈망의 변질

시 42:1-2(읽음)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 하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순수한 갈망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 목적 대로 내가 나 되어 가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가고, 피조계가 피조계 답게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기초부터 훈련의 매 단계마다 만족되는 수준에 올라야 합니다. 예술가, 전문인, 주부 등, 모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유아일 때, 유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순수한 욕구들이 잘 채워지면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 됨의 길을 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죄성(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변질되는 것입니다.

렘 6:13 “...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마 23:25 “...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엡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앞서 언급한 선한 욕구도, 변질된 탐욕도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진 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면 참된 나 됨에 이릅니다(참 만족). 그러나 자신만을 채우는 것이라면 탐욕의 인간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은 화목해야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웃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2] 화목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은 하나님의 피조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성을 이루는데 가장 중심되는 열망입니다. 화목은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 장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12:1). 그리고 3 절 이하를 읽어보면 영적 예배의 핵심은 화목(하나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 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저주란 상대가 재앙/불행을 당하기를 비는 것이고 축복은 풍성한 선한 열매 맺기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당하지 않았어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판단, 정죄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되겠어? 당신은 틀렸어.’ 화목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15 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최근 누구의 즐거움과 눈물에 함께 공명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말은 쉽게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즐거움과 눈물에 함께 하면 영생의 화목의 세계가 열립니다.

16 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 나보다 어리고, 위치, 자격이 낮아서 지시/하대하기 쉬운 상대를 만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17 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선한’ = 탁월하고 유용하고 아름다움. 자기 일을 통하여 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도 모멸/비하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8 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 마침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지만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14-18 절 말씀의 빛 아래 화목의 삶을 훈련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히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주님을 본다는 뜻은 삶의 복음의 차원이 실제로 열리고 경험/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뵈면 어느 누구도 감동과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축복도 따라옵니다.

[3] 화목을 구하는 갈망

본문이 내 안에서 화목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다가오시지요? 유진 피터슨은 말씀의 역사가 다음과 같은 내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추측하고 있던 바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바를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 뒷전에 감추고 있던 것을 앞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어떤 갈망의 존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사람은 갈망에 따라 움직이고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일깨워주는 선한 갈망(참된 사람, 은혜, 화목을 구하는)은 하나의 귀결점으로 모아지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시 42:2).

<맺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가 필요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갈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갈망(하나님을 향한)에 따라 사셨고, 죽으셨고, 마침내 갈망의 성취를 이루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히 12:2)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갈망을 일깨우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뵈는 참된 화목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당신의 삶에서 화목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화목(하나됨)에 대한 추구가 별로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은 나의 삶에서 무엇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혹 최근에 발견한 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또한 화목(하나됨, 지체됨, 공동체 의식...)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3. 이 글의 도입 부분과 뒤에서 언급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글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4.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 갈망에 따른 것이었다면 갈망을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망에 대해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고: 요 17 장(esp. 11, 22 절), 엡 2:11-22